

또 지만원... '5·18 특혜 가짜 전단' 배후 지목

서울·부산 등서 잇단 발견... 기념재단 조만간 수사 의뢰 10여년간 5·18 상습 왜곡... "비호세력 존재 규명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5·18유공자 자녀 공무원시험 가산점 특혜 가짜 전단'의 유력한 용의자로 5·18기념재단이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지목하고 조만간 수사의뢰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5·18재단은 특히 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 5·18유공자 관련 허위주장이 담긴 전단을 올리고 전국에 배포해야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데다,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에도 10여년간 5·18왜곡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지씨 뒤에 비호 세력이 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내뱉었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량진·청량리, 대구 영남대·경북대, 울

산, 부산 등에서 '5·18유공자 자녀 공무원 가산점 특혜'라는 주장을 담은 전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5·18재단은 발견된 전단이 총 6종으로, 하나같이 '5·18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 '해마다 늘어나는 5·18유공자 입양자녀들' 따위의 주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단 내용은 모두 가짜다. 5·18재단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 5~10%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해당한다. 가산점을 인정받아 취업한 5·18유공자(자녀)도 현재 391명으로, 전체 가점 취

업자 3만2700여명 중 1.2% 수준이라는 게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5·18기념재단은 '5·18유공자 공무원 특혜 가짜전단'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배경에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된 것으로 판단, 조만간 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 지난달 22일 오후1시34분 '10%가산점 받는 급수저...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라는 제목의 2장짜리 전단을 올리면서 "지금 사무실에 전단지 쌓였습니다. 전국방방곡곡에 도배해야합니다"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지씨는 '1980년 5·18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서 활동했다'는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해 10여년간 끊임없이 5·18을 왜곡한 문제적 인물이다. 5·18 관련 왜곡 사

실을 담은 서적 8종을 펴내고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뉴스타운 호외)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고 있다. 특히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전단의 경우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은 발행금지처분이 내려졌고 어길 경우 회당 200만원의 배상금을 내도록했다.

급기야 전두환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 지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인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조만간 경찰에 지만원씨를 '5·18유공자 공무원 시험 특혜전단'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5·18을 왜곡주장을 일삼는 대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지만원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 "재단 정상화 이후 물러날 것"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12일 "재단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한 이후 물러나겠다. 사퇴 시점은 2개월 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 이사장은 이날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의 혁신,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공개했다.

차 이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지역사회 비판과 광주시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5·18기념재단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5·18재단이 쇄신하는 한편 재단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직원들 처우 또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18재단은 앞서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한 시민단체 의혹 제기로 광주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직원 채용, 5·18 사료기증 관련 불투명한 금액산정, 계약직 채용 남용 및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5·18재단은 쇄신 압력을 받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취업·진로 상담...광주대 찾은 청년버스...
광주고용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산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코이카 등의 상담 부스가 운영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취업과 관련한 상담도 이뤄졌다.

한빛원전 4호기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검사

1·2호기는 보수후 재가동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4호기(영광원전)는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빛 4호기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격납건물 내부철판을 정밀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격납건물 철판은 라이너플레이트라고도 불리는데, 원자로 용기가 들어있는 격납건물 외벽인 1.2m 두께의 콘크리트 안쪽을 둘러싼 6mm 두께 철판이다.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지 않도록 외벽 안쪽에 추가로 설치한 방호벽이다.

한빛원전 2호기 격납건물철판에서는 지난해 6월 135개의 부식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관통부(미세구멍)도 발견됐다. 이후 한빛 1호기에서도 부식된 곳 50개, 한울 1호기 7개, 고리 3호기 127개가 확인됐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위원회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 함께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국내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한빛4호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한빛1, 2호기는 보

수 후 원원유 승인을 거쳐 가동 중이며, 한빛4, 5, 6호기도 올해 안에 격납건물 내부철판부식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지난 6일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가 잇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자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안전성에 우려(광주일보 4월 7일자 7면)를 표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해질녘 19:03
달 뜨기 20:53
달 질기 07:20

나들이 괜찮아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7/21	보성	맑은 뒤 흐림	3/20
목포	9/18	순천	맑은 뒤 흐림	7/21
여수	9/20	영광	맑은 뒤 흐림	5/18
나주	4/19	진도	맑은 뒤 흐림	6/16
완도	8/20	전주	맑은 뒤 흐림	6/20
구례	3/21	군산	맑은 뒤 흐림	6/17
강진	3/20	남원	맑은 뒤 흐림	2/20
해남	4/19	홍산도	맑은 뒤 흐림	9/17
장성	4/20			

◇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남서	서	0.5~1.0	남	서	0.5~1.5	
남부	남서	서	0.5~1.5	남	서	1.0~2.0	
남해	남서	서	0.5~1.0	남	서	0.5	
남해	남서(동)	서	0.5~1.5	남	서	0.5~1.0	
서부	남서(서)	남	서	1.0~1.5	남	서	1.0~1.5

◇ 월별 날씨

목표	간조		만조	
	08:41	20:49	03:32	15:37
여수	04:11	16:12	10:17	22:41

'도가니' 피해자 학대 복지법인 대표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2일 장애인시설인 '가고 행복빌라'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상해 등)로 사회복지법인 '가고'의 대표이사 이모(여·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관찰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시설장 마모(여·45)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고 행복빌라 피해자 중 일부는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 소속 장애인 보호시설 인화원에서 생활했던 장애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월 12일 가고 행복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플라

스틱 막대로 어깨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후원금, 장애인 수당 등 2억9846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의혹으로 제기됐던 식재료 착취·후원금 횡령, 장애인들에게 곰팡이가 핀 빵 제공, 처방이 없는 정신과 약물을 투여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직원들에게 세차, 청소 등을 강제로 시켰고 선물 구매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장애인 학대와 횡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종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전남 첫 공립 대안학교 담양에 설립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가 담양에 들어선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담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봉산면 옛 봉산초 양지분교를 리모델링해 민관 위탁형 고교 과정 대안학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 대

안학교는 60명 규모로, 일반 고교 과정뿐 아니라 진로교육과 체험학습 등 대안교과 중심의 교육과정도 편성돼 운영된다. 교육청은 교육부(40억)와 담양군 지원 예산을 포함, 70억원을 투입한다.

대안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곡성에서 대안교육위탁기관인 심청골짜리마을 운영에 강재구 대표가 운영을 맡게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